

간제온지 사원 보물고-장관을 이루는 불교 미술품

간제온지 사원의 보물고는 희소 가치가 높은 수많은 불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뚝 솟아오른 불상부터 작은 보살상까지 방문객들은 이들 불상의 정교하게 만든 세부적인 부분과 뛰어난 기술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원이나 신사에서 불상을 감상할 때 멀리서 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중요한 불상을 전시 케이스 없이 가까이서 보는 기회는 매우 드뭅니다. 작품에 따라서는 매우 드물게 전시되거나 전혀 전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제온지 사원의 보물고에는 이들 중요문화재 바로 앞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만든 기술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6 개의 불상은 섬세한 십일면관음보살부터 검을 손에 든 5m 가 넘는 거대한 불공견각관음상까지 다양합니다. 그 외에도 사방으로 불교를 호위하는 근엄한 모습의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각각의 불상에는 외국분들도 불교에서 각 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불상과 장식에 대해 흥미를 가지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제온지 사원은 전성기 때는 규슈를 대표하는 불교 사원으로서 과거 드넓은 경내에는 수많은 건물과 화려한 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창건 당시의 건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정숙한 분위기의 자연으로 가득한 경내와 아름다운 건물, 인상적인 보물고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합니다.